

# 아미타 · 미륵 신앙, 민초에게 희망을 주다



김용래 교수의  
한국불교 도픽 36選

## 6. 정토, 내세의 유토피아 꿈꾸다

7세기 중반 삼국통일 후 신라 사회에서 불교가 말게 된 과정은 이전과는 결이 다른 새로운 차원의 것이었다. 불교가 깊어져야 했던 새 미션은 바로 사회적 대통합과 신앙의 대중화였다. 이전에는 지역적으로 수도 경주를 중심으로 하고 불교신앙의 수요층도 왕실 및 지배층이 주요 고객이었다면, 이제는 옛 고구려와 백제 지역을 포괄하는 확대된 영역, 신라사회의 구성원 전체를 상대로 해야 했다. <삼국유사> 등의 사료에서는 저자거리와 벽촌마을에서 일반민을 상대로 한 포교행위가 활발히 펼쳐지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한반도 동남부 변방에 위치한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가야를 병합하면서 고구려, 백제와 대등한 위치에 올라섰고 그 여세를 몰아 삼국 통일의 위업까지 완수한 것은 대단한 일이었다. 하지만 오랜 전란으로 인해 민생은 피폐해졌고 죽은 자의 영혼을 위로하고 산 자들의 마음을 달래는 일은 불교가 감당해야 할 몫이었다. 신라인들은 불교를 통해 현세의 바람과 내세의 안위를 얻고자 했고, 불교는 그럴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즉 문제의 해결을 위한 콘텐츠와 방안을 불교 안에서 충분히 찾을 수 있었고, 7세기 중반의 신라사회에서 폭발적 인기를 끈 것은 바로 아미타 정토신앙이었다.

통일을 전후한 시기에 신라에서 대종교화로 이름이 난 승려로는 혜숙, 혜공, 대안, 원효가 있었다. 이중 혜숙은 앞서 7세기 전반에 지방에서 불교의 가르침을 전파한 대중화의 선구자였다. 그는 화랑 낭도 출신으로 국선인 구장공이 사냥을 즐겨하자 자신의 허벅지 살을 베어 주며 살생을 하지 말 것을 권유하였고 국왕의 초정까지 거부하고 일반민을 위한 포교에 전념하였다. 그의 불교 대중화를 위한 노력은 7세기 중반 혜공의 활동으로 이어졌다. 그는 하인 출신으로 삼태기를 쓰고 춤과 노래를 하는 등 신이한 행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혜공은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반야공관을 중시하였고 원효에게 공의 가르침을 전수해 준 이로도 알려져 있다.

<금강삼매경>을 편집했다고 하는 대안 또한 당대의 유명한 교화승이었는데, 그는 미친 척하고 길거리를 다니면서 적극적인 포교활동을 벌였다. 신라를 대표하는 불교사상가인 원효 또한 온 몸을 던져 불교의 대중화에 앞장섰다. 그는 요석공주와의 로맨스 이후 환속하여 소성거사로 자칭하였고 광대의 춤을 추고 무예가를 부르며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무예행의 교화를 펼쳤다. 원효는 현실의 고통에 시름하는 사람들을 위해 아미타 정토신앙을 보급하였고, 그로 인해 무지한 사람들도 부처의 이름을 알고 나 무아미타불을 부르며 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시간과 출세간에 걸림이 없었던 그의 삶은 당시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아미타 정토신앙은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할 후에야 자신이 성불하겠다는 취지의 48개 서원을 세운 법장 비구가 결국 아미타불이 되어 서방에 극락정토를 만들었고, 그의 원력에 의해 누구나 극락정토에 왕생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서방 극락정토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세와 내세를 아우르는 이 사바세계를 벗어나 서쪽에 별도의 공간으로 만들어진 일종의 유토피아이다. 현세를 떠나 죽은 후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의 6도 윤회를 계속 반복하게 되고 그 윤회의 사슬을 끊는 방법은 열반(해탈) 외에 방법이 없다는 것이 불교의 기본적인 가르침이다.

하지만 서방 극락정토로의 왕생은 아미타불의 원력에 의해 더 이상 윤회하지 않고 부처의 세계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답답한 현실과 윤회의 부담에서 벗어나 누구나 죽은 후의 유토피아를 꿈꿀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호소력과 흡인력을 가지는 것이었다.

따라서 아미타 정토신앙은 동아시아에서 엄청난 대중적 파급력을 가지면서 크게 유행했다. 아미타 정토를 살한 <무량수경>에서는 정토왕생을 서원하고 염불을 하면 큰 죄를 짓거나 불법을 비방한 자가 아니라면 누구나 왕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아미타불의 이름을 외는 칭명만으로도

### 통일신라인들 내세 안위 소원

### 아미타 정토신앙 폭발적 인기

### 광덕 · 엄장 설화 등 이를 증명

### 미륵신앙도 대중들에게 퍼져

### 고단한 삶 이겨내는 원동력으로

왕생이 가능하며 악인도 왕생할 수 있다고 하여 정토로 가는 문을 활짝 열었다.

중국의 정토신앙 수용과 불교식 사후 관념의 정착에 기여한 이는 여산 해원이었다. 그가 활동하던 남북조시대에는 불교의 윤회 문제에 대해 윤회의 주체인 영혼이 과연 있는가를 둘러싸고 유불 간의 논쟁이 벌어졌다. 해원은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중국의 전통적 신멸론(神滅論)에 대해 법신으로서 붓다의 영원성을 전제로 하여 영혼이 존재한다는 신불멸론을 주장하였다.

이는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무아와는 배치되지만 중국인들이 불교의 윤회와 업 관념을 이해하고 수용하는데 있어 중요한 매개 고리가 되었다. 해원은 또 윤회를 탈피하고 서방정토로 바로 왕생할 수 있는 아미타불 관상 수행을 권장하였고 그를 위한 백련사를 조직하여 정토신앙의 전형을 제시하였다.

중국의 정토신앙은 6세기 전반 당나라에 의해 이론적 체계가 잡히고 도작과 선도가 활동하던 7세기에는 칭명염불을 통해 쉽게 왕생할 수 있는 타락신앙으로서 큰 호응을 얻고 대중적 기반을 넓혔다. 도작은 말법시대에는 중생 구제를 위해 정토가 더욱 절실하다고 하여 칭명염불을 강조하였는데 하루에 7만 번이나 염불을 하였다고 한다. 또 염주를 만들어 염불



국보 제109호 근위 삼존석굴. 흔히들 제2석굴암으로 알려져 있지만 경주 석굴암보다 조성시기는 빠르다. 석굴 내에는 본존불인 아미타불과 좌우로 대제지보살, 관음보살이 있다. 통일 신라시기의 아미타 신앙을 보여준다.

을 권하고 공과 팔로 염불한 수를 세는 소두염불 방식도 제시하였다. 그의 제자인 선도는 염불을 큰 소리로 외는 구칭염불을 권장하였고 많은 정토 관련 주석서를 남겼다. 이들의 노력에 의해 정토신앙은 반석위에 놓였고 이후 고종과 선종에서 모두 정토신앙을 인정하고 수용하였다. 특히 선종에서는 '유심정토 자성미타'를 내세워 수행의 한 방법으로 염불을 활용하였다. 또한 계율의 준수를 강조하는 염불결사가 성행하는 등 정토는 선과 함께 불교의 주류적 사조가 되었다.

신라에 들어온 아미타 정토신앙은 삼국통일기인 7세기 중반부터 크게 유행하였고 왕족, 귀족층에서 일반민과 천민까지 모든 계층에 걸쳐 신봉되었다. 문무왕의 동생 김인문을 위해 개설된 아미타도량인 왕족의 사래라면, 염불을 통해 살아서 바로 서방극락으로 왕생한 노비 육면의 설화는 하층민의 경우이다. 육면은 여종이었는데 극락정토에 뜻을 둔 진주 지방의 거사 수십 명이 미타사를 세우고 만일계회를 만들자 주인을 따라 절에 갔다가 법당 밖에서 염불에 전념하였다.

그녀는 주인이 염불을 방해하고 과도한 일을 시켰음에도 정성스럽게 염불에만 정진하였다. 어느 날 하늘에서 "법당 안에서 염불하라"는 소리가 들렸고

그녀는 법당 안에 들어가 염불을 계속하였다. 어느 순간 서쪽에서 음악소리가 퍼지면서 그녀의 몸은 들보로 뚫고 한순간에 서쪽으로 날아갔고 조금 가다가 부처의 몸으로 변하여 연화대에 앉은 채 빛을 발하면서 극락으로 향해 갔다. 이 일화는 노비라는 신분도 그렇지만 살아있는 현세에서 바로 극락정토로 왕생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서사구조를 담고 있다. 또 정토왕생을 희구하는 염불결사를 조직해 거의 28년이나 되는 긴 시간동안 만일염불에 매진하는 모습이 이른 시기부터 있었음을 보여주는 설화이기도 하다.

통일기의 신라 사회에서 아미타 정토신앙이 크게 성행하였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로 문무왕대의 광덕과 엄장을 들 수 있다. 광덕과 엄장은 정토로 왕생할 때 서로 알리자고 약속하였는데, 어느 날 엄장은 "나는 이제 서쪽으로 갈 테니 당신은 잘 지내다가 후에 나를 따라오시오"라는 광덕의 소리를 듣게 되었다. 엄장은 남편이 떠난 광덕의 처와 함께 살게 되었는데 밤에 남편의 정을 통하려 하자 그녀는 "당신이 서방정토를 구하는 것은 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질책하였다. 엄장은 광덕도 서방정토로 갔는데 왜 자신은 안 되는 것인지 의아하게 여겼다. 광덕의 처는 "그는 10여 년이나 동거

하였지만 한 번도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고 밤마다 아미타불을 외우고 16관을 이루었기에 서방정토에 갈 수 있었습니다. 천리를 가는 자는 첫걸음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당신은 동쪽으로는 갈지언정 서방정토에는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였다. 엄장은 부끄러워하며 원효에게 찾아가 가르침을 받았고 결국 뇌우치고 오로지 한 마음으로 관법을 닦아서 극락으로 가게 되었다고 한다.

광덕이 지은 <원왕생가>는 "달이시여, 이제 서방정토에 가거든, 무량수 부처님 앞에 אלי어 아뢰어 주소서. 다짐 깊은신 부처님 우리러보며 두 손 모아 서, 원왕생 원왕생 그리는 사람 있다 아뢰소서. 아아 이 몸 버려두시고 마흔여덟 가지 큰 소원 이루실 수 있겠습니까?"라는 내용이다. 간의 설화와 이 항가에서 정토왕생을 향한 광덕의 간절한 염원과 치열한 구도행의 자세를 엿 볼 수 있다.

신라에서는 아미타 정토신앙과 함께 전부터 중시되던 미륵신앙도 계속 성행하였다. 특이한 것은 도솔천으로 왕생하는 미륵상생신앙과 극락정토로 왕생하는 아미타신앙이 하나의 패키지로 묶여 나타나 는 점이다. 719년 성덕왕대에 김지성이 감산사를 세우고 죽은 부모를 위해 미륵보살상과 아미타불상을 동시에 조성한 것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이 두 상은 광배 뒤에 조성자와 조성 동기를 적은 명문이 있고 또 미술적으로 매우 뛰어난 작품으로 유명하다. 또한 <삼국유사>에 전하는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의 다음 이야기에도 미륵과 아미타불이 함께 등장한다.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은 출세간에 뜻을 두고 승려가 되었고 백월산 인근에 각자 거주하면서 부득은 미륵을 구하였고 박박은 아미타를 예배하였다. 3년이 안된 어느 날 저력 젊은 여자가 박박의 암자에 나타나 하룻밤 목기를 청하였지만 박박은 거절하였다. 여자는 부득에게 찾아가는데 부득은 날이 어둡고 또 중생을 따르는 것이 보살행임을 떠올려 유숙하게 하였다. 밤에 부득은 염불에 전념하였는데 여자가 갑자기 출산 준비를 부탁하였다. 해산한 후 여자는 부득에게 목욕을 하게 해 달라 하였고 곧 향기가 나면서 몸이 황금색으로 변하였다. 여자가 이 몸을 부득에게 부처 부득의 온 몸이 황금색으로 변하면서 연꽃좌대가 나타났다. 이에 여자는 자신은 관음보살이며 부득이 깨달음을 얻도록 도왔다고 말하고는 사라졌다. 다음 날 박박이 부득에게 가보자 부득은 미륵존상이 되어 있었다. 박박은 지난날 자신의 마음에 가리는 것이 있어서 성인을 만나고도 몰랐음을 탄식하고는 부득에게 서로의 약속을 잊지 말자고 청하였다. 이에 통의 남은 물로 목욕하게 하자 박박은 바로 아미타 존상이 되었고 이들은 촌민들에게 법을 설하고 구름을 타고 사라졌다고 한다.

삼국통일 후 개인의 평온과 내세의 인락을 염원하는 불교신앙이 신라 사회의 전 계층, 전 지역에 걸쳐 퍼져나갔다. 특히 이전부터 유행해 온 미륵신앙과 함께 아미타신앙이 새로운 정토신앙으로 각광을 받게 되었다. 7세기 중반 신라에서 큰 인기를 끌기 시작한 아미타 정토신앙은 이후 불교신앙의 대표주자가 되었고 고려와 조선에 걸쳐서 오늘날까지 극락정토로 향하는 불교인들의 꿈과 염원은 계속되고 있다.

##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CD

위없는 법열(法悅)  
환희심 가득 찬 향기로운 연꽃으로 거듭 피어나길  
맑은 향 사르오며 두 손 모읍니다.

詩人 김하리 합장

가격 10만원 ⇨ 90,000원  
입금계좌 : 동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구입문의  
02)2004-8216  
현대불교 연불샵

CD01-제1, 서품(39:25)	제8, 오색제자수기품(21:11)	제15, 종지출품(21:13)	제22, 축루품(04:36)
CD02-제2, 방편품(46:51)	CD06-제9, 수학무학인기품(11:22)	CD08-제16, 여래수랑품(21:15)	제23, 악왕보살본사품(23:10)
CD03-제3, 비유품(54:28)	제10, 법사품(18:39)	제17, 분별공덕품(23:31)	CD10-제24, 무량보살품(16:12)
CD04-제4, 신해품(30:24)	제11, 건보탈품(22:19)	제18, 수회공덕품(13:23)	제25, 관세음보살보문품(19:26)
제5, 악초유품(16:08)	제12, 재바달다품(15:54)	CD09-제19, 반사공덕품(24:17)	제26, 다라니품(10:07)
제6, 수기품(17:13)	CD07-제13, 권지품(10:07)	제20, 상량경보살품(13:15)	제27, 묘장엄왕본사품(14:46)
CD05-제7, 화성유품(51:41)	제14, 안락행품(27:27)	제21, 여래신력품(08:59)	제28, 보현보살권발품(14:07)